

‘광학세계’ 제1회 편집위원회 간담회 개최

편집위원회 운영 방안과 광학세계의 기획 방향 제시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행하는 광학세계지는 20여 년 동안 협회 및 회원사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광학세계는 광학산업을 대변하는 종합 전문지로서 시장정보, 기술정보, 해외동향, 업계동정 등 관련 정보 및 소식을 전하며 광학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에 협회는 광학산업 발전과 관련해 광학세계의 역할과 과제를 되새겨 보고 관련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전문지로 거듭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2월 2일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편집자 주>

! 참석자 명단 !

김영준(차바이오&디오스텍 상무이사)
 김동균(그린광학 연구소장)
 김현규(토피스 대표)
 정진호(프로옵틱스 대표)
 이윤우(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연구센터장)
 박춘봉(부원광학 회장)
 우태주(한국광학기기협회 부회장)
 진행/박지연 기자

광학세계지의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2월2일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광학세계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편집위원 11명중 6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 광학세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한국광학기기협회 우태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광학세계를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내 광학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고 오늘 ‘광학세계 제1회 편집위원회’ 자리를 만들었다”며 “광학세계가 제호에 걸맞게 국내 광학계를 대변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양한 영역의 기사화와 인터넷판 운영의 필요성 제기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에 앞서 기자를 통해 광학세계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경과보고를 전해들은 편집위원들은 창간20주년을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광학세계가 편집위원회 없이 기자 혼자서 기획 및 편집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에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기로에 서서 광학세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변신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표준연구원의 이윤우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쟁하는 상황까지 발전한 시점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광학전문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특히 해외 유명 광전시회 정보 및 해외 광학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피스의 김현규 대표는 “최근 정보 취득방식은 인쇄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으로 바뀌었음을 감안하여 광학세계도 인터넷판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학세계에 담긴 좋은 정보들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 젊은층의 구독자를 더욱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광학세계의 기사 기획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중 프로옵틱스의 정진호 대표는 “광학세계의 영역은 협회의 영역 또는 위상과 같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광학기계협회란 명칭에서 ‘기기’라는 용어 때문에 광학세계의 편집방향도 광학전체에서 한 영역으로만 다루게 된 것”이라며 “‘광학세계’라는 제호는 광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만큼 협회이름인 ‘광학기계’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광소자, LED, 태양전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사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및 편집위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통해 참신한 기획 구성

한편, 이날 편집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편집위원회 성격으로 갈 것인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갈 것인지, 또는 두 기능을 다 가져 갈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편집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 각 호별 특집 및 기술원고의 기획은 물론, 필자섭외를 도움받기로 했다.

편집위원회는 산업계, 연구계 관련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프로옵틱스의 정진호 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최고 연장자인 부원광학의 박춘봉 회장을 고문으로 선출했다.

편집위원회의 공식 모임은 1년에 2회(5월, 11월)로 하되, 인터넷 포털에 광학세계 편집위원회 전용 카페를 개설하여 한달에 1~2회 이상 카페활동을 통해 편집기획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그 외 수시로 기자가 편집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광학세계 편집위원회 명단〉

이름(소속)	구분
이종웅 교수(청주대학교)	
황보 창권 교수(인하대학교)	
이윤우 박사(표준과학연구원)	
정진호 사장(프로옵틱스)	편집위원장
김영준 상무(차바이오&디오스텍)	
김현규 사장(토피스)	
안지훈 기획실 과장(삼성디지털이미징)	
김남성 전무(이오테크닉스)	
김성웅 홍보실장(신도리코)	
조현일 사장(그린광학)	
박춘봉 회장(부원광학)	고문

‘광학세계’ 제1회 편집위원회 간담회 개최



▶ 광학세계지의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2월2일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 협회 우태주 부회장은 “광학세계 발전을 위해 편집위원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프로옵틱스의 정진호 대표는 “‘광학세계’라는 제호에 걸맞게 한쪽 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사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준과학연구원의 이윤우 박사는 “국내 학회를 통해 최신 기술정보를 입수하고 해외 유명 광전사회 정보 및 해외 광학기술자료 등을 광학세계에 적극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핀스의 김현규 대표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광학세계’도 하루빨리 인터넷판을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차바이오&디오스텍의 김영준 상무는 “‘광학세계’ 질적 보강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협회가 정부의 기획조사사업과제 등 다양한 사업수주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지원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그린광학의 김동균 연구소장은 “국내외의 유사잡지를 벤치마킹하고 분석하여 ‘광학세계’의 질적 보강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광학세계의 창간부터 지금까지 지켜봐왔다는 부원광학의 박준봉 회장은 “초기 광학현장에서 관련 서적을 보고 싶어도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애태우던 시절에 창간된 광학세계는 그만큼 우리 업계에 있어 뜻 깊은 존재”라며 “오늘 특히 국내 광학산업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학세계의 발전방안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광학세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